반등 아닌 '구조적 강세'… AI·정책·이익 3박자 상승장 견인

4 체질 개선형 랠리〈끝〉

날개 단 코스피 상승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2일 메트로경제가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 리서치센터장에게 설문 조 사한 결과 코스피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구조적 강 세장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 I) 투자 사이클의 지속과 기업 실적의 가 시적 상향, 주주환원·거버넌스 등 밸류 업 정책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 를 냈다.

코스피 강세의 동력에 대해 김동원 K 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3저 호황(저금 리•저유가•저환율)과 자본시장 구조개 선, 반도체 이익 상승이 핵심"이라고 말 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장은 "이번 랠리는 실적 턴어라운드와 산업정책에 기반한 구조적 강세장의 초 기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김학균 신영 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사상 최고치를 경 신하는 시장을 단기 반등으로 부르긴 어 렵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상반기 오천피 청사진 AI·이익·정책 랠리 지속 반도체・전력기기 주도 상승 지배구조 개선 동력 부각

반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 터장은 "현재보다 20% 이상의 시가총액 확장 여지는 있지만, 구조적 강세로 보 려면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성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신중론을곁들였다.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장 세의 본질은 '생산성 장세'로, 미국 인공 지능(AI) 가치사슬에 연계된 산업 중심 으로 멀티플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1990년대 IT CAPEX 상승기와 유 사한 흐름으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말·내년 밴드 '상향'··· 4500~ 4600, 우호 시 5000

연말·내년지수 밴드를 제시한 하우스

〈설문에 참여한 10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삼성증권

김동원

KB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No.





미래에셋증권







윤창용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조수홍 NH투자증권

들은 잇따라 상단을 높이는 추세다.

하나증권

삼성증권은 연말 코스피 밴드를 3600 ~4050으로 제시했다. KB증권은 연내 3440~4250, 내년 상반기 3800~4950을 제시해 상단을 넓혀뒀다. 신한투자증권 은 연말 3200~3700을 제시하며 "단기 변 동성은 있어도 추세는 유효"하다고 밝혔 다. 대신증권은 4분기 3500~4100을 제 시했고, 하나증권은 연말 3200~3950을 제시했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 은 "기업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되 고 있어 내부적으로 내년 상반기 전망치

를 4400~4600선으로 재산정했다"고 말 했다. 그는 "코스피 5000은 다소 이르다 고 보지만,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되고 반도체•전력기계 업종의 실적이 계속상 향되는 가운데, 대미 투자 이슈나 한미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타결된다면 자 동차 등 소외 업종까지 상승 흐름이 확 산될 수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실제로 협력체(APEC) 계기로 성사된 한·미 정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

최광혁

LS증권

한국과 미국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 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5000을 기대하며 환호하는 투자자들

서 15%로내리기로합의했고그결과현 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가 급등했 다. 아울러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가 코스피 상승 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봤다.

'오천피' 시대 도래에 대한 전망도 제 시됐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 터장은 "수출 전망 상향과 주주친화 정 책 동력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코스피 5000 도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5000은 중기 시점(2027~2028년)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자기자본이 익률(ROE)개선 ▲AI·로보틱스·바이오 실적 가시화 ▲글로벌 유동성 회복을 전 제로 들었다.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 터장은 "글로벌・국내 '폴리시 믹스'가 최 소 2026년 상반기까지 대세 상승을 지지 한다"고 했고, 김동원 센터장은 "1985년 3저 조합과 유사한 환경에 코스피 이익 증가율(2026년 +31% 추정)까지 맞물려 내년 상반기 상단 4950까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찬 센터장은 "오천피달성 의 전제는 경쟁력과 성장성, 정책의 실효 성확인"이라고강조했다. 김학균센터장 은 "2~3년 지평에선 5000이 현실적 목표 가 될 수 있다"면서도 "지배구조 개선과 이익 변동성 완화가 동반돼야 프리미엄 시장으로 전환된다"고 짚었다.

◆반도체 등 AI에 주목

주도 업종은 'AI 밸류체인'이 꼽혔 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전력기기·원전·로봇이 유망하 고, 지수 상승이 이어지면 증권 업종의 실적 모멘텀도 강해질 것"이라며 "코스 피 전체 영업이익은 올해 282조원에서 내년 368조원으로 약 30% 증가할 것"이 라고 전망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반도체는 3년 연속 순이익 증 가 국면으로, 과거 사이클 기준 추가 상 승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 일 센터장은 "반도체·원전 등 인프라 업 종의 중장기 모멘텀은 유효하고, ESS 수요확대로 2차전지의 밸류에이션 재평 가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최광혁 LS증권 리셔치센터장은 "반도체·전력기

계에 더해 기업들의 AI 도입 확산으로 I T서비스가다크호스가될수있다"고말 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 다.

박희찬 센터장은 "AI 랠리와 반도체 업종의 이익 모멘텀 개선이 이어지고 있 다"며 "조선, 방산, 뷰티, 증권업과 반도 체 등 실적과 정책 수혜가 중첩되는 업 종이 대표적인 수혜군"이라고 말하며 자 동차를 주요 유망군에 포함하지 않았 다. 최광혁 센터장은 "자동차는 소비 회 복이 확인돼야 본격 반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 말까지는 반도체·조선·방산·증권 등 기 존주도주가 시장을 이끌겠지만, 악재가 선반영된 자동차・바이오 등 소외주의 비 중확대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밸류업·주주환원 강화 기대 외국인 순매수 흐름 견조 기업 이익 상향세 확산세 구조적 강세장 초입 진입

◆외국인·연기금이 버팀목

증권가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 4000선 이후 추가 상승의 열쇠를 '수급' 에서 찾았다. 개인과 기관(증권사 포함) 은 단기 변동성을 키울 변수로 꼽혔다.

김동원 센터장과 김학균 센터장은 "달 러 약세와 실적 업종 강세에 힘입은 외 국인 순매수 지속"을 공통적으로 거론했 다. 박희찬 센터장은 "외국인은 실적에 따라 움직이고, 연기금은 정책적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황승택 센 터장은 "금융투자 순매수의 상당 부분은 개인 ETF 매수 영향으로 보이며,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 자금 유입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광혁 센터장은 "원·달러 하락 흐름이 확인되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더 탄력받을 것"이라고 전 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